

## 처음으로 경연심사에 참가하여...

금강산가극단 문예국 부장 송영숙

이번에 처음으로 문예동무용경연심사를 하게 되고 저자신 많은것을 느끼고 배울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전국문예동무용부 맹원들이 조선무용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또 일을 하면서 분초를 아끼고 연습에 전념하여 이번 경연에 참가한 녀맹소조원들의 춤은 인생경험이 반영되어 있어 표현력이 풍부하면서도 호흡이 부드러워 그야말로 조선녀성의 외유내강이 잘 표현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청원동무들도 몸이 가벼워 활달하면서도 약동감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조선무용을 춤출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무대우에 차넘쳐 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원한 마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각 지방마다 준비해온 창작품들도 착상이 새롭고 특색이 있어 매력적인 작품들이 많아 정말 감탄하였습니다! 물론 기술기량과 기초훈련도 중요하지만 조선무용을 춤추는데 있어서 잊어서는 안되는것은 감정과 정서, 느낌 그리고 우리만이 형성할수 있는 멋과 맛일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선무용을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문예동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우리 동포들과 일본사람들에게 조선무용을 통해서 주체예술의 매력을 보여줌으로써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면 합니다.

저도 금강산가극단의 무용수로서 앞으로 전국의 문예동무용부동무들과 함께 춤출수 있는 그런 마당을 적극 꾸려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를 마련해주신 임수향부장을 비롯한 문예동맹원동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심사결과

#### 연구소 독무 초급부부문

1등	물동이춤	김미사	마이조선무용연구소
2등	팽이춤	려설아	조선무용교실<무희>
3등	팽이춤	백성란	<춤>조선무용교실
3등	팽이춤	박성아	리미남무용연구회
입선	팽이춤	허모모	미예무용교실<이쁜이>
입선	소고놀이	리미하	조선무용교실<무희>

#### 문예동 중무부문 가조

금상	문예동도꼬지부	바라춤
금상	문예동도까이지부	소고춤
은상	문예동오사까지부	우리 장단이 좋아
은상	문예동교또지부	사당춤
은상	문예동효고지부	방울춤
동상	문예동도까이지부	바라춤

#### 연구소 독무 중급부부문

1등	줄채방울춤	김향나	<춤>조선무용교실
2등	장고춤	김세나	조선무용교실 <무희>
3등	복춤	송춘희	<춤>조선무용교실
입선	직포공의 마음	송경희	<춤>조선무용교실
입선	젊은 무희	리사애	리미남무용연구회
입선	물동이춤	리리용	조선무용교실 <무희>
입선	직포공의 마음	석미월	<춤>조선무용교실
입선	소고춤	최선아	리미남무용연구회

#### 문예동 중무부문 나조

금상	문예동효고지부	소고춤
은상	오까야마조청무용소조	경북춤
동상	문예동오사까지부	신바람
동상	문예동교또지부	소고춤
동상	문예동도꼬지부	패랭이춤

#### 연구소 고급부 독무부문

1등	소고춤	려려화	리미남무용연구회
2등	조개춤	김양미	마이조선무용연구소

#### 문예동 군무부문 가조

금상	문예동효고지부	봉선화
금상	문예동오사까지부	그날에 활짝 피리
은상	문예동도꼬지부	환희
은상	문예동효고지부	장고춤
동상	문예동교또지부	무녀춤

#### 문예동 독무부문 가조

금상	기쁨	문예동도까이지부	정유의
은상	복춤	문예동후꾸오까지부	조미학
동상	소고춤	가가와	박지영
동상	부채춤	문예동오사까지부	조부사자
동상	청춘의 기쁨	문예동니시도꼬지부	정진

#### 문예동 군무부문 나조

금상	문예동도꼬지부	박관무
금상	문예동효고지부	꽃바라춤
은상	문예동효고지부	손복춤
은상	문예동도까이지부	1월의 아침
동상	문예동오사까지부	우리의 금수강산

#### 문예동 독무부문 나조

금상	장고춤	문예동도까이지부	윤마나
은상	바라춤	문예동도꼬지부	정미화
은상	복춤	문예동효고지부	서미래
은상	젊은 무희	문예동교또지부	김세리
은상	젊은 무희	문예동오사까지부	김향희
동상	손복놀이	문예동도까이지부	리채화
동상	복춤	문예동오사까지부	담애미

### 단체상 문예동효고지부

# 舞 朝鮮 무용 통신

発行：在日本朝鮮文學藝術家同盟中央舞蹈部 〒112-8603 東京都文京区白山4-33-14 TEL03-3817-0431

제14호 (루게 제14호)

주제100 (2011)년 11월 20일 (일)

## 제7차 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 무용경연대회와 전국문예동무용부 무용공연 《우리의 한마음》이 대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지난 2011년 8월 6일과 7일에 걸쳐 히가시오사카시립시민회관에서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제7차 무용경연대회와 전국문예동무용부 무용공연 《우리의 한마음》이 진행되었다.

각 문예동지부 무용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 무용경연대회를 7번째로 맞이하게 되었으나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대진재로 인하여 이번 경연대회개최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나섰다. 그러나 1년 전으로부터 준비를 해온경연대회와 무용공연은 그만둘수 없으며 이런 시기이야말로 개최하여 조선무용을 가지고 우리 동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어야 할것이라고 의견일치를 보게 되었다.

제7차 무용경연대회 당일에는 임수향심사위원장(문예동중앙 무용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예술가)과 김향순(문예동중앙 사무국 부장), 리선옥(문예동중앙 무용부 부부장, 문예동니시도꼬지부 부위원장), 리미남(리미남무용연구회 회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배우), 현계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예술가), 박선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배우), 송영숙(금강산가극단 문예국 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배우), 윤수지(문예동중앙 무용부 위원, 문예동가나가와지부 부위원장), 고정순(문예동중앙 무용부 위



원), 김경애(문예동효고지부 위원장), 김청자(문예동도까이지부 무용부장), 권일선(조선무용연구소 《나래》 소장: 시가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하였다.

무용경연에는 연구소 초급부 독무무분 10연목, 연구소 중급부 독무무분 21연목, 연구소 고급부 독무무분 2연목, 문예동 독무가조 5연목, 문예동 독무 나조 7연목, 문예동 중무 가조 6연목, 문예동 중무 나조 5연목, 문예동 군무 가조 5연목, 문예동 군무 나조 5연목, 제 66연목이 경연에 출연하였다.

제7차 무용경연대회는 그날중으로 시상식과 폐회식을 끝내었으며 경연에 출연한 문예동맹원들은 다음날인 8월 7일에 전국문예동무용부 무용공연 《우리의 한마음》을 성대히 진행하였다.

2011년 11월 1일 문예동중앙 무용부 임수향부장과 리지령부부장, 리혜인부부장은 후쿠시마조선초중급학교와 도호꾸조선초중급학교 무용부학생들을 위하여 무용공연 《우리의 한마음》의 리득금 20만엔을 회사하였다.